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비전2000운동 기도의 역사로 새벽을 깨우다

오늘 새벽 5시에 천국시민 총집결
28일 저녁 7시 승전감사예배

21세기를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지난 8월 18일 진군예배를 드림
으로 시작된 비전2000운동이 하
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충현 성
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전개
되고 있다.

성도들은 매일 새벽 5시에 교
회로 달려나와 "믿음과 소망과 사
랑의 사도가 되자"를 제창하면서,
청년들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
도의 열기로 새벽을 깨웠다. 또
한 24일에는 금식하면서 1억 3
천만 일본인과 70만 재일 동포들
과, 2천만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
도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거둔 난
젊은이들을 구름배와 같이 배출
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
도하였다.



한편 이 운동에는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참가자
들이 동참하여 은혜스런 분위기를
한층 더 돋구었다.

28일까지 계속될 이 비전2000
운동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권사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날아 올라가듯, 주님이 주시는 새로
운 힘이 권사님께 날로 넘쳐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벽기도회에는 개근상을, 철야기도회엔 우등상을, 교회를 위
한 수요권사기도회엔 특근상을 받으셔야 할 권사님. 어디 그뿐인
가요, 교구를 돌보시는 일엔 헌신상, 전도하는 일엔 열심상, 성도
섬기는 일에는 겸손상, 교회의 무거운 짐까지 양 어깨에 서슴없이
메시는 권사님. 가정에선 화목상까지 받으실 것이 틀림없으니 주
님께서 이같이 훌륭한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부족한 종을 위해 말 없이 기도의 눈물을 뿌
리시고 사랑으로 격려하시던 권사님의 진심을 사함인들 왜 모르
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터이니 "내 이름으로 선
지자를 대접한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마"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
총이 권사님과 자손 대대에 넘쳐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건강하
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
도가 되소서.

8.25

이 중 윤 목사

제1회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은혜롭게 진행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
도자대회가 172명의 참석한 가
운데 지난 22일(목) 저녁 6시 나
사렛홀에서 개회예배를 드림으로
6일간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
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헌
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



련된 이 대회는 청년들에게 자기

갱신과 세계 선교에 대한 헌신을
다짐케 하는 6차례의 강의와 영
성훈련인 눈물의 성회 등 다채로
운 프로그램으로 27일(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에는 참가
자들이 충현기도원으로 가 산상
기도를 하였으며, 오늘은 일예
배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부 교
회학교를 탐방할 예정이다.

목회자세미나 제3학기 9월 2일에 개강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
연구원(원장 이종윤 목사)가 주
관하고 있는 목회자세미나의 제
3학기가 오는 9월 2일(월) 개강
한다.

11월 11일까지 진행될 이번 학
기는 "목회자와 교육"이라는 주
제로 성경적인 목회자상을 정립

하고 교회 교육의 방향을 조명하
는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바람
직한 교회 교육을 위해서는 바른
교회관의 정립이 필수적이기 때
문에 "성경적 교회론"을 주강의
로 채택하여 이종윤 위임목사가
강의를 맡았다.

	제 1 교 시		제 2 교 시	
	오후 2시~3시 30분		오후 3시 50분~5시 20분	
9월 2일	성경적 교회론 이종윤 목사 (충현교회 위임목사)	목회자의 영성 개발	정진경 목사 (신촌성결교회 담임목사)	
9일		교회학교 성장 방안	정정숙 교수 (충신대학교 교수)	
16일		교역과 교육	은준관 교수 (연세대 신과대학 학장)	
30일		성경적인 목회자상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원로목사)	
10월 7일		교회학교 교사 자질 개발	정일웅 교수 (충신대학원 교수)	
14일		목회자의 가정 생활	이연옥 박사 (여성지도자 계속교육원 원장)	
21일		교회학교 교재의 현황과 개발	오인택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28일		기독교 교육과 인간 이해	이영덕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11월 4일		제자훈련의 원리와 방법 모델	이조웅 목사 (충현교회 부목사)	
11월 11일	직분자의 효율적인 교육 박종렬 목사 (충무교회 원로목사)	성 경 적 교 회 론 이 종 윤 목사		

성경연구원

90년도 2학기 개강 박두

성경연구원(원장 이종윤 위임
목사)의 91년도 제2학기가 오는
8월 31일 오후 6시 30분 베다니
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써 시
작된다.

주간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
양대원양성부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학기에 많은 성도들이 참가
하여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한 믿
음을 세워 거둔 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
국시민으로 생활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등록 접수는 사무국
(소석관 102호)에서 받고 있다.

91년도 제8차 세례식 거행

우리 교회는 지난 8월 21일 수
요 I부와 II부예배 시간에 세례
식을 거행하였다. 이종윤 위임목사
의 집례로 진행된 이 세례식에서

69명이 학습을, 66명이 세례를,
17명이 유아 세례를 받았으며, 8
명이 입교하고, 3명이 개종하였
다.

김의철 장로 재시무



82년 미국 이민으로 휴직했던
김의철 장로가 90년 1월 귀국하
여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
충현교회 당회는 김 장로의 재시
무를 가결하였다.

이로써 우리 교회는 69명의 시
무장로를 두게 되었다.

야고보는 언어생활을 조심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어란 지식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지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습관적으로 배우게도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제1일

새 시대의 새 일꾼

(약 3:1, 2)

1. 선생에 대한 경고

본문에서 선생이란 ‘랍비’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이는 히브리어로는 ‘랍’이라는 말로서 크고 위대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존경받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랍비의 대부분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랍비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주석가 마티오 헨리는 랍비들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순종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겸손과 순종을 가르쳤던 거짓 지도자들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선생이 되려거든 여

러 사람 앞에서 조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육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 오르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전부 바치겠다고 서원하고서도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우물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1세기의 주역들은 가치관과 생활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청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찾으라”를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은 도금된 불행이요, 감추어진 독약이며, 잠복하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따

라서 먼저 인간적인 야망을 버리는 것이 21세기의 주역이 되는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이 21세기를 환상으로 보는 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도인 것입니다.

2. 비판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

선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높은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성이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도자가 되어 자기 위치를 망각한 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힐난하여서도 안됩

니다. 우리들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바른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21세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본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을 심판이 보통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말의 실수에 대한 경고

우리는 모두가 실수가 많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말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다닙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약 3:2). 이처럼 죄의 대부분은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비전 2000 운동

새벽기도회 설교 ①



이 종 윤 목사

야고보서 강해

심리학자들이 사람 가운데 완전주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신 18:13; 마 5:48).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이란 인간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 위에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벧 3:12; 요 1:8).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땅 위에 없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무용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자 하시는 참 뜻은 어떤 것입니까?

1.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다볼 때 역량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고전 10:12). 그러므로 우리에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숙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2절 말씀은 우리들이 말을 제어

제2일

완전한 사람

(약 3:2~5)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몸의 다른 부분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라고 애통해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완전함을 고백할 때,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가 없으시며”(벧전 2:2)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 141:3)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 혀(말)의 위력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 몸의 작은 지체 중 하나인 혀를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은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3절과 4절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사나운 말(짐승)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한다고 했습니다. 또 광풍이 밀려오는 위험한 상황에서 큰 배를 마음대로 움직이려면 저극히 작은 키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작은 재갈이나 키가 사나운 말이나 큰 배를 다스릴 수 있듯이, 우리의 몸에 있는 혀는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잘 다스려지면 온 몸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의하면, 저극히 작은 혀가 온 몸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혀가 짐한 악을 피하여 날 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시

52:2)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잠 10:11) 혀는 매우 힘이 있는데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가 자지르는 악한 영향을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혀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도 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잠 10:11). 인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이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면서 못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전도자의 혀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전해주는 그 입술은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보다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비록 짧은 말, 긴 논리가 아니고 웅장한 웅변이 아니었을지라도 아름다운 한 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달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의 혀는 천과 같게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우리의 여생을 천과 같은 의인의 혀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91년도 하반기 70인전도대원을 모집하면서●

인생의 짐을 가볍게 지는
지혜를 가르칩니다송 태 근 목사
(전도위원회 지도)

“신앙은 손자까지 보아야 진 짜”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전 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잘 지 적한 말이다.

우리 교회 70인전도대는 단지 방법을 전수하거나 교회 속의 한 부품처럼 당연히 자리잡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복음에는 생명력과 능력이 있 기 때문에 복음을 바로 받고, 바 로 배운 성도이면 그에 합당한 삶 의 열매와 결과를 통해서 다시 생 명을 낳고 번식하는 자연스런 과 정(전도)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삶을 경험하는 성도 야말로 복음의 맛과 그리스도 안 에서의 희열 속에서 이 세상에 영 향을 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증인인 것이다. 때문에 70인전 도대는 전도를 위한 기술에 관해 서도 중점적으로 훈련하지만, 먼 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지혜를 훈련하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11:28)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거나 벗겨주시거나 대신 저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오해해서 는 안된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11:29, 30)는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볼 필 요가 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예 수님의 의도는 누구나 인생살이 를 하면서 질 수밖에 없는 무거 운 짐들을 예수님께만 가면 없애 주거나 대신 저주시겠다는 것이 아 니다. 그것은 짐을 어떻게 져야 지만 똑같은 무게의 짐일지라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느냐 하는 ‘짐을 지는 지혜’를 가르쳐준다는 말이다.

등산을 오래 한 사람과 초보자 의 차이는 등산용 배낭을 어떻게 꾸리느냐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초보자들은 짐을 꾸릴 때 무거운 물건을 배낭 제일 밑바닥 에 넣고 그 다음에 가벼운 순으 로 넣는다. 그렇게 하면 무게가 아래로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그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면 힘이 배 나 들어서 금방 지친다. 그러나 노련한 사람들은 가벼운 것을 제 일 밑에, 그리고 제일 위에는 무 거운 것을 올려놓는다. 그러면 무 게가 어깨에 걸리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초대는 인생 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져야 할 짐들을 없애주시거나 대신 저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짐 을 가볍게 질 수 있는 지혜와 원 리를 가르쳐주시겠다는 말이다.

충현교회의 70인전도대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삶의 바른 원리와 지혜를 통해서, 온 유와 겸손으로 짐을 지고가는 성 도들의 걸음을 통해서, 많은 불 신의 영혼들이 그 순례자들의 생 애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 앞에 구름떼처럼 몰려오는 환상을 꿈꾸는 것이다.

훈련받고, 훈련받은 대로 살며, 도토리나무 속의 상수리나무를 보 듯 비전2000을 바라보자.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9월 7일 오후 6시 베다니홀

●훈련 일정: 9월 10일~11월 26일(12주) 매주 저녁 7시 30분

●강 사: 송태근 목사(전도위원회 지도)
이상규 간사(CCC소속)

●70인전도대 훈련 내용

내 용	강 사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송태근 목사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송태근 목사
사영리 소개법(1)	이상규 간사
사영리 소개법(2)	이상규 간사
사영리 소개법(3)	이상규 간사
사영리 소개법(4)	이상규 간사
삶의 우선순위(Lordship)	송태근 목사
기도	송태근 목사
제자훈련(양육을 중심으로)	송태근 목사
개인 성경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송태근 목사
성도의 삶과 찬양의 능력	송태근 목사
교회는 무엇인가	송태근 목사

소망부 수양회 은혜중에 마쳐

소망부(부장 김제명 장로, 지 도 김양흠 목사)가 지난 8월 19 일과 20일 수양회를 가짐으로써, 9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양회 가 모두 끝났다.

하루 평균 4백명이 모인 이 수 양회는 이종윤 위임목사와 김양 흠 목사를 강사로 하여 “독수리 신앙을 갖자”라는 주제 아래 은 혜롭게 진행되었다. 할아버지, 할

소망부 여름 수양회



머니들은 부흥회, 장기자랑 등을 통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 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살롬경로대학 29일에 임시 소집

충현살롬경로대학(학장 이종윤 위임목사)은 오는 9월 12일에 개 학하는 91년도 2학기 수업을 준 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 소집을 한다. 학생들의 많은 참

여를 바란다.

- 일시: 8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갈릴리움
- 회비: 2천원

충현교회에서 230km 떨어진곳, 자동차편으로 안전운행을 하며 휴게소에 잠시 들러서 기다라도 4시간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곳. 꼭 있어야만 할 교회가 없어서 우 선 50여명을 수용할 만한 크기의 천막을 세우고, 충북 영동군 황 간면 서송원리에 소재하고 있어 “서송원 충현교회”(민춘화 전도 사 담임)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에 축조전도를 하면서 그 지역 취락구조를 스캔치하여 보 니, 마치 한약방 진열장에 걸려 있는 대형 사슴뿔처럼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다. 즉 영동-황간으 로 곧게 뻗은 국도 양측에 짧게 5개로 갈라진 동네길을 중심으로 가옥이 세워져 있다.

부흥회 시간에 동네에서 모여 온 아주머니 한 분께서 설교중에 불쑥불쑥 질문을 던졌다. 김광국 목사님께서 좋은 반응이 있음을 직감하시고 간증을 곁들이시며 이 해를 돕는 시원스런 대답을 해드 렸다. 그러라고 예배가 30분 이나 늦게 끝나기는 하였으나 그 분을 포함하여 8명이 예수님을 영

접하였다. 다음날에는 남편과 이 웃 아주머니까지 인도해오셔서 결신케 하는 일도 있었다. 피차 기쁨을 감출 수 없었으며 그 분 내외는 음료수를 한 팩씩 갖고 오

일간 반복하여 뿌렸다. 주민 생활 수준은 도시에 크게 뒤떨어질 바 없는 문화 생활을 하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자 족하는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전

수입원이 된단다. 중고등학교를 5km나 떨어진 황간면이나 13km 떨어진 영동까지 다녀야 하는 불 편함이 있기는 하다.

여름성경학교에 연일 40여명

회라는 선입관 때문에 괜히 스스 로 부담감을 느껴 쉽게 교회로 발 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다고 실토 하는 분이 있기도 했다. 우리 대 원들이 확인한 주민반응을 전도 사님께 평가회 시간을 통하여 전 해 드렸더니 1개월 정도의 수고 를 해야만 될 일들을 며칠 동안 에 파악이 가능케 되어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좀더 많은 도움을 드리 지 못한 것이 아쉽고, 목사님께 서는 대원들의 아낌없는 수고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 르겠다고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시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거듭 얘기하셨다. 하나님 께서 위로해주시고 후하게 복내 려 주실 줄로 믿으며, 아무쪼록 민춘화 전도사님께서 어려운 개 척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님 께서 전적으로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훌륭히 이뤄드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실 수 있 게 충현교회 형제들의 기도가 절 실히 요구된다.

■농어촌전도를 다녀와서

옥토에 뿌린 씨앗
열매있기를 기도 요청이 요 섭 집사
(제7교구, 서송원충현교회팀)

서서 주민 초청 잔치 분위기를 더 욱 화기애애 하게 만들었다.

맨 아래쪽 노근리 길을 따라 27개 가구 등 180여개 가구를 일 일히 방문하여 복음의 씨앗을 3

도 하기란 매우 힘들다고 민 전 도사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

서송원리에서 생산되는 포도 와 부사사과는 서울 가락동시장 에서 맛을 인정받고 있어 좋은

의 어린이가 출석하여 말씀과 찬 양, 율동을 배우는 모습과 순종하 는 마음은 너무나도 티없이 맑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어른들 중에는 천막교

다음날 아침 그리스도를 위한 새 동구라파 대회(New Eastern Europe for Christ Conference)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일행은 버스로 6시간의 진군을 했다. 18세기 세계 선교의 전원이자 되었던 모라비아의 칼비나에서 동구라파 7개국(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소련)을 포함한 25개국 대표 350여 명이 100여 명의 체코 지도자들과 더불어 5일간의 대회를 열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32개의 선교단체들까지 참여한 이번 대회는 필자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16개월 전 토마스 왕 목사님(AD2000운동 총재)과 함께 필자가 동구라파 목회자 세미나(유고의 오지엠펜에서 200여 명이 모임)에 참여 후 동구의 여섯 나라를 순방하며 교회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후 충현교회 김치(KIMCHI) 세미나에 각 나라에서 5명씩 초청하여 열흘간 지도자 훈련을 했다(90년 11월). 서울에 초청된 각국 대표단은 91년도 7월에 체코에서 동구라파 복음화 대회를 열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세운 바

■ 동구라파 선교여행기 ③

마게도나의 부름에 응답한 한국 교회



이 중 윤 위임목사

있었다. 물론 재정 지원의 시급함이 있어 충현교회는 이를 뒷받침하고 'AD 2000운동'에서 대회를 주관하게 한 것이다. 칼비나 대회는 다른 어느 대회와도 그 성격면에서 달랐다. 우선 40년 동안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매맞고 갇혔던 이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특이했다. 따라서 이들의 대회는 화려한 장식이나 꾸밈이 전혀 필요치 않았다. 이번 대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못지 않게 자기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준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저들도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백성임을 인식케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가 대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회를 시발로 동구라파 복음화를 위한 계속적인 운동 전개를 위해 각국의 대표들이 대회 기간 중 매일 점심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 토의한 결과 AD2000운동의 이름으로 동구라파 지역 총무를 세워 그로 하여금 각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격려케 하고 국제적 활동에 참여케 하며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교파간의 갈등을 해소

하며 복음화대회와 같은 연합 사업을 주관케 하였다. 이번 칼비나 대회에 김치(KIMCHI) 동문이 13명이나 참여하여 피에텍 대회장을 비롯하여 전체 회의를 저들이 주도해가는 모습을 보고 또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 중 마게도나(유고) 출신 파블레 체코브 목사를 동구권 지역 총무로 추대하고 그를 충현교회 선교사로 임명하여 지원케 함으로, 한국 교회가 동구권 복음화 전략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만들었다. 파블레 목사는 92년 1월부터

동구라파의 중심부인 브라티스라바(체코)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동구권 복음화에 헌신케 될 것이다. 대회 기간 동안 충현교회 세계 선교위원회가 준비한 게시물과 전단 탓인지 각국의 대표들이 수없이 몰려와 우리 일행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모습은 우리를 즐겁게 했다가 보다 사명의 무거움을 실감케 했다. 내전으로 우리가 찾아가지 못한 유고슬라비아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자국 복음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의논해왔고 60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참가한 소련 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많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방문으로 소련 교회가 혜택도 받았지만 제각기 자기 편에서 일하기를 요청하고 있어 한국 교회 몇몇 지도자들의 선교 전략에 일침을 가하면서 자중을 요청해오기도 하였다. 특히 김치(KIMCHI) 동문들이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강줄기를 따라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마을을 찾아 방문 전도하는 시베리아 9월 전도단에 한국 교회의 참여를 호소해 오기도 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이번엔 기도 지원만을 약속했다.(계속)

달리는 준마

부다페스트

김 연 이 전도사
(출판부, 중등1부 지도)

높이 치솟은 침탑은
천년의 고도를 자랑하는데
터키의 말발굽과
공산주의 마수가
너를 할궤구나

아직도
붉은 용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하느바람은

너의 불을
어루만진다.

복음에 목말라
갈한 너에게
새벽을 깨우는
기도 소리가
홍해를 가르치는
능력이 되어
고된 영혼 쉬이는
자장가 되리

충현동산 묘지 사용규정 개정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음악예배가 오는 9월 1일(주일) 저녁 7시에 있다. 이 음악예배에서는 암나눔엘찬양대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연주할 예정이다. 이

곡은 헨델의 메시아, 멘델스존의 엘리야와 함께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꼽히는 대작이다. 이 연주에서 지휘는 조신욱 집사, 반주는 김윤경 집사가 맡고 충현오케스트라가 협연하게 된다.

9월 1일에 38주년 기념음악예배

충현동산의 묘지를 이용하는 성도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회는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충현동산 묘지 사용 규정"을 개정하였다. 앞으로 본 동산 묘지는 교회에 전가족이 등록된 경우에는 세례받은 후 6개월이, 개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세례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교인과 세례받은 직계 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미 등록된 교인이라도 6개월 이상 출석치 아니한 교인에게에는 묘지 사용을 불허한다. 그러나 당회가 인정하거나 군복무, 해외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초등1부 글짓기

여름성경학교

송 지 환 학생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렸던 보람있고 재미있던 여름성경학교가 무사히 끝나치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생각보다 유익한 성경학교였다. 첫째 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재미있는 찬송과 율동을 하였다. 공부 끝난 후 간식도 맛있게 먹고 영화 "창수 만세"를 갈리리홀

에서 보았다. 둘째 날에 재미있는 율동을 하였다. 셋째 날이 기다려졌다. 왜냐하면 만들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이어서 좋은 선물도 주신다고 하였다. 생각대로 좋은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수영 가방이었다. 여름성경학교가 무사히 끝나쳐 저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 섭

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을 용서한 요셉이나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최 재 훈 학생

역삼동 언덕에 자리잡은 우리 교회는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웅장하고 위엄이 있고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이다. 그 앞에 처음 선 순간 감탄이 지절로 나왔다. 교회에 출석하여 보니 사랑이 충만한 사람만 모인 곳,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나 또한 하나님이 좋아서 나왔다. 선생님은 정말 고마운 분이시다. 이처럼 수고가 많으신 분들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워 교회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전도사님 설교가 기다려진다. 나도 충현 교인이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복음을 믿지 않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친구를 사랑하며 용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나라에 계신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광양의 소리

- ◎ ... 비전2000운동,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은혜롭게 진행. 구경꾼은 가고 헌신신사는 태산을 이루네.
- ◎ ... 사치는 돈을 쓰면 가능하고, 절제는 머리를 싸야 가능.

그러나 이 힘든 절제의 원동력은 신앙 그것이다. ◎ ...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죄로부터의 사유함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옥가게 충분하니까.

바로 잡습니다

지난 8월 4일자 주간충현 1면에 실린 '무지개회 총회' 기사 중 "시무장로"를 "시무장로, 원로장로, 협동장로"로 바로 잡습니다.